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39.05	↓ 코스닥	749.59
	(+17.78)		(-0.08)
↓ 금리 (미국 9년)	2.630	↑ 환율 (원/달러)	1452.50
	(-0.008)		(+1.30)

최태원 상의 회장
“기업, 사회문제 해결
체계적 접근 필요”
02



‘트럼프 관세 피해 한국으로’ 中 유통기업, 韓 공략 본격화

테무, 韓 시장 진출 본격 준비
주요 부서에 한국인 직원 채용
통합물류시스템 구축도 검토
미니소, 철수 3년 만에 재등장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 주요 부서에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며 본격적인 진출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직군에서는 이미 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는 한국 내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테무가 본사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주요 물류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프라인에서는 중국 기업인 ‘미니소’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브랜드 ‘미니소’는 8년 전 국내에 첫 진출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철수했다. 그러다 철수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중순, 서울 혜화동에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한국 시장 공략을 재개했다.

실제 중국 유통기업들의 한국 시장 내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애플리케이션 및 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연간 결제 추정 금액은 2021년 1조 1103억 원에서 2024년 3조 6897억 원으로 급증했다. 테무 역시 2023년 311억 원에 불과했던 결제 추정 금액이 2024년 6002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공략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시장을 공략해 우회 전략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역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다른 시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 제품들이 내수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시장을 새로운 판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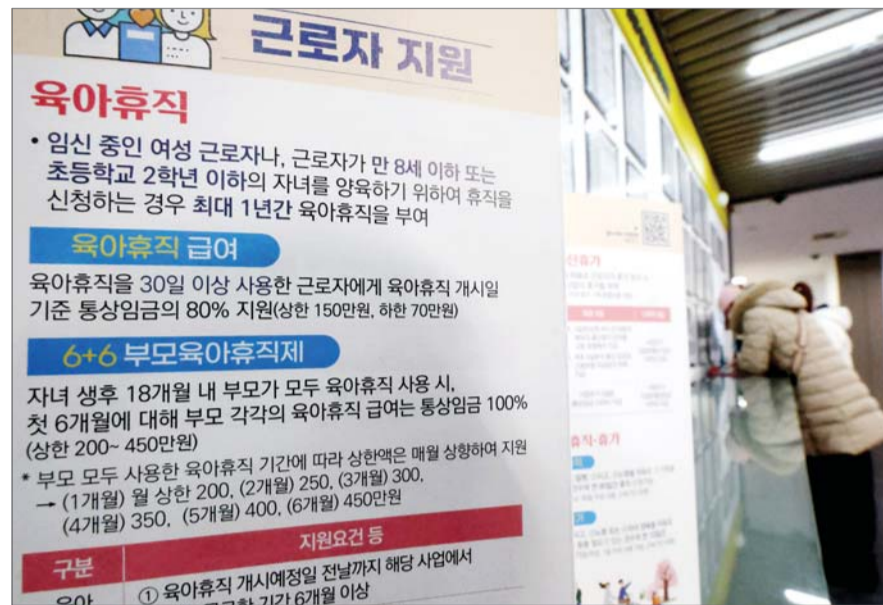
다만, 중국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는 담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중국 제품은 품질이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중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유통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높은 관세로 미국 수출이 제한되자, 한국을 우회 전략의 거점으로 삼아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한국 시장 직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테무는 지난해 말부터 인사, 총무, 홍보·마케팅, 물류 등 핵심 부문에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테무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출당스(PDD)’의 자회사로,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웨이코코리아유한책임회사’라는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한국인 직원을 두지 않고 채용 공고도 내지 않아 직진출보다는 단순 직구 중개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23일부터 ‘육휴’ 1년6개월로 확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뉴시스

아파트 줍줍 무주택자만 가능 청약 가점용 위장전입도 차단

국토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병원·약국 등 내역으로 실거주 입증 거주 요건은 지자체가 탄력적 부과

앞으로 소위 ‘줍줍’,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이 무주택자만 가능토록 규정이 바뀐다. 누구나 조건없이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청약이 과열되자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거주지역 요건도 신설된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과열 양상을 빚은 무

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량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최근 120만명이 몰린 세종 무순위 청약 처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세종시나 충청도 거주 등 조건을 부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美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 25% 관세”

알루미늄도 10% 관세 부과
정부, 업계와 대응방향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관한 포고문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 없다”라고 밝혔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알루미늄에도 10% 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수출 협정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12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문에는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맺은 협정도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 제품에

정인교본부장과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워터 폐지에 따른 철강업계 대미수출 여건 변화와 품목별 시장 경쟁력 분석 등 대응 방향을 업계와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미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미 철강 수출국 4위를 기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가가 적용되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 263만톤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히고 주요 철강사의 피해가 우려된다. /원승일 기자 won@

“올 성장률 기껏해야 1%대 중반”

KDI ‘경제전망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 제시
시국 불안 장기화 땀 1%대 초반

올해 GDP(국내총생산) 증가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껏해야 1%대 중반이고 그보다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종전(지난해 11월) 예측인 2.0%에서 무려 0.4%포인트(p) 낮췄다. 이는 12·3 사태 및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른 큰 폭

의 하향 조정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민간소비(1.6%)와 수출(1.8%) 증가 폭이 모두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전망 대비 각각 0.2%p, 0.3%p 내려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발 경제전망과 국내 시국불안이 장기화할 시 1.6%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1% 중반대니까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 신원식 “윤 ‘비상한 조치 필요’ 언급… 계엄은 부적절해 반대” /사진 뉴시스
- ▲ 권익위, 거제 등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상공인 고충 수렴

- ▲ 정부, ‘청년친화도시’ 3곳 첫 지정… 관악구·부산진구·거창군
- ▲ 민주 연수원장 “외로운 늑대들, 지체된 의식 가져” 여 “2030에 비뚤어진 인식”

- ▲ “헌재 없애버려” 김용원, 내란 선동 혐의로 추가 고발당해
- ▲ 기재위 소위서 ‘K칩스법’ 통과…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